

'카피'를 통해 본 광고쟁이 30년

「카피라이터 가라사대」 펴낸
김태형씨

카피라이터, 하면 펄펄 뛰는 광고쟁이, 그 가운데서도 지적이며 섬세한 감각의 여자가 떠올려진다. 환갑을 코앞에 둔 카피라이터 김태형(59, 웰컴부사장)씨는 그러한 통념의 대척점에 위치한다. 튀기는 고사하고 선비같이 단아하고, 시적인 긴장보다 산문처럼 조용하고 말소리는 나직하다.

'광고바다' 사람 같지 않은 특징의 그지만,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가운데 한 사람이고, 지금도 최고의 카피료를 받는 '현역' 중의 현역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는 최근 카피라이터 생활 30년을 정리하는 「카피라이터 가라사대」(디자인하우스)를 펴냈다. 이 분야에 첫손 꼽히는 그이지만, 그리고 생애 첫 책이지만 '어떻게 해서 카피라이터가 되었고 이 일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무엇이고 좋은 광고는 어떤 것이고 카피를 잘 쓰려면 어떠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열하지 않았다. 광고와 사회에 대한 생각(1부), 지금까지 써온 주요 카피(2부)들로 단출하게 꾸몄다. 독자들은 신문·잡지에서나 보았을 법한 헤드라인과 바다카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고, 또 "이 재미있는 카피를 쓴 사람이 바로 그이구나"하고 새삼 감탄하기도 한다.

"누구나 자기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든 나에게도 30년이나 해온 일임에도 여전히 카피쓰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쉬운 글 좀 써보자 싶어 손댄 게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글이 돼버렸지요. 꼭 이름을 붙이자면 '광고시,



직업시'라고나 할까요?"

그가 아직도 짙은 현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카피들을 보면 안다. "불어라 산소바람, 가거라 조미료 소주"(산소소주 시티)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음식이 갑니다"(삼성문단속 냉장고) 등이 최근 히트한 카피라면 "50청년이 있는가 하면 30노인이 있습니다"(그랑페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크리넥스) "청개구리 심보"(참존화장품) 외에도 무수한 명카피들이 그가 썼거나 함께 일하는 '웰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진정한 카피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지요" 이런 광고철학은 "그의 카피는 생활비평이다"는 말을 듣는 원동력이 된다. 그는 제품도 믿음이 안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돌려보낸다. 그것은 나아가 '큰돈 되는' 정치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된다. "마음에 드는 상품(정치인)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나는 광고쟁이의 끼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말한다. 그런 그의 말투엔 옛날 약대를 졸업하고 경북 영주의 한 시골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샌님 같은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

—정혜옥 기자

동물의 사회행동 통한 인간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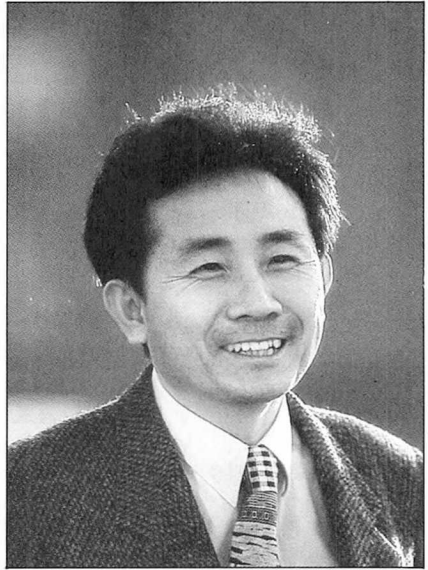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펴낸
박시룡 교수

동물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흡혈박쥐들은 밤이면 피를 빨아먹을 가축들을 찾아다닌다. 이때 경험이 없는 어린 박쥐들은 쇠등에 제대로 빌붙지 못해 굶주린 채로 돌아오기 일쑤인데, 나이 많은 박쥐들은 자신이 빨 피를 토해서 어린 것들에게 먹인다고 한다.

"동물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단순한 행동 속에서도 제 자식을 지키려는 성실한 노력을 엿볼 수 있지요. 정확하게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경이로움마저 느낍니다."

「재미있는 동물이야기」(지구촌)를 펴낸 박시룡 교수(교원대·43)의 얘기다. 과연 이 책에는 경이롭기까지 한 '동물들의 세계'가 손수 찍은 사진들과 함께 흥미있게 소개돼 있다. 한 예로 새들에게도 '방언'이 있다고 한다. 산맥이나 대양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새들은 같은 종이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 노랑나비는 노천의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겨울잠을 자는데도 핏속에 부동액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얼어붙지 않는다. 새끼물고기들을 자신의 커다란 입속에 넣어 보호하는 '태래어'라는 어미 물고기는 자기 새끼만한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새끼와 먹이를 놀랍도록 잘 구별하여 삼킨다.

"지금의 생물 교과서는 외국 것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들을 가르치고 귀중한 점을 알리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땅에 사는 동물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박교수는 독일 본 대학에서 '동물사회행동학'을 전공했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흡혈박쥐의 사회행동과 음성학적 커뮤니케이션」.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박교수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해부에 치중하는 우리나라의 생물학 풍토에 '길러서 연구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동물행동학이 폭넓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만 했을 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희귀한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에 숲을 지납니다. 언제나 듣는 새소리지만 그 의미는 때면 다르게 들리지요. 과학자 팀버겐은 큰가시고기의 똑같은 행동을 수만번 관찰해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어요. 그들의 세계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를 닮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열두 살 난 외동딸을 둔 박교수는 현재 도롱뇽을 기르며 그들의 구애행동을 연구중이다.

—한 강 기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팩시밀리 739-2129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지혜로운 자가 되고픈 이들에게
동서고금에 걸쳐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모아, 올바른 삶의 지표로 제시하며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 김창원 편 / 400쪽 / 값 5,800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X세대니 감성세대니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쏟아지는 상업문화의 범람 속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

나는 세상의 중심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깨달음의 책!
◆ 석터 거웨인 지음 / 김명렬 옮김 / 400쪽 / 값 5,800원



‘박종철’ 담당검사의 못다한 이야기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펴낸 안상수씨

87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젊은이의 죽음을 기억한다. 87년의 모든 함성에 기폭제가 됐던, 서울대 인류학과 3학년에 다니다 고문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을.

한 사람의 죽음은 거리에서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플래카드로 떠돌아 다녔고 법정에서는 경찰의 고문수사에 제동을 거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로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상수씨(49, 변호사)가 그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수사 진행 상황을 기록한 책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동아일보사)를 펴냈다.

“벌써 8년이 지났군요.” 안상수씨가 박종철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까지 8년. 안기부의 말이 곧 법처럼 통용되던 군부정치 시대의 칼날이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8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일기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마치 박종철사건 일지를 보는 듯하다. 세세하게 묘사된 사체부검과정, 사건 초기부터 안기부가 밀접하게 간여했다는 사실,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외압, 검찰·안기부·경찰의 줄다리기가 세세히 묘사되어 있다. 담당검사로써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글 속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박종철사건은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로서도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꼭 물어두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젠가는 밝혀질 사건이기도 했지요.”

정부의 편으로만 생각되던 검찰의 끈질긴 추적은 마침내 강민창(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해 사건을 축소조작 은폐하려는 경찰의 수뇌부까지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그는 박종철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사건이 전개되면서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은 물론 서울지검에서 춘천지검으로 좌천되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안상수씨가 이제와서 박종철사건을 다시 거론하게 된 이유는 아직도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그 의문은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전두환 대통령,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것이다. 또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구성원으로 알려졌던 인물들도 이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안상수씨는 주장한다.

87년 9월 검사직을 그만둔 그는 서울지방변호사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87-1919) 운영위원장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권변호사로 변신해 있다.

—이성수 기자

현실과 맞물린 대중속의 심리학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 펴낸 최창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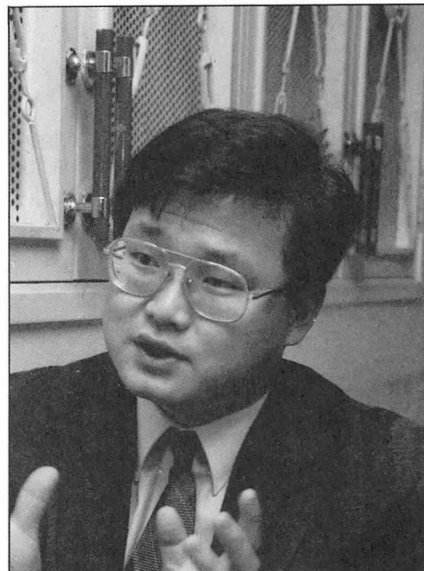
노랑진에서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는 이따금 난데없는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요즘들어 심심찮게 등장한 신혼 자살족들 때문이다.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미세기)을 펴낸 최창호씨(30,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 박사과정)는 이러한 자살소동을 “나 죽을테니 좀 봐주세요?”하는 몸짓이라고 말한다. 이들 중에 심중팔구는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는 죽으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살충동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교가에 올라간 사람들은 저마다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씨가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밝혔듯이 “한 인간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회현실”이 더 큰 원인이다.

비단 자살뿐 아니다.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은 여러가지 사회 병리현상과 개인의 내면심리를 심리학과 연결시키고 있는 대중을 향한 사회심리학이다.

“어떻게 하면 심리학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연일 대서특필되는 사회문제 제 신문·잡지·TV를 참조해 갖가지 사건들을 탄력있게 심리학에 접목하는 ‘묘안’을 발견해 냈지요.”

그 결과 순수 이론심리학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내 대중심리학으로 응용하는 데 풍부한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고, 이것은 심리학이 현실을 적극 수용한다는 면모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는 자부한다. 최씨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회병리적 증상들의 심리학적 원인을 명쾌하게 파헤치고 있다. 중년에 들어서서 느끼는 ‘빈 등지 증후군’이나 젊은 여자들에게만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는 ‘로리타 콤플렉스’(‘영계 콤플렉스’로도 부름), 빛나간 성욕에서 비롯된 동성에 등이 그렇다.

“심리학은 사회 인문과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동차, 우주공학, 교육, 의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각도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론 중시 경향이 너무 강해서 심리학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야 과감하게 우물 밖으로 나와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씨는 현재 대학원 4학기 과정에다 4개나 되는 지방 대학강의까지 겹쳐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심리학 실험 이야기를 다룬 「사이코 심리학」(가제)을 쓰느라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한바탕 웃는다. 저서로는 「심리학으로 바라본 세상, 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가 있다.

—배은희 기자

“열화당과 함께할 참일꾼을 찾습니다.”

열화당은 미술과 사진, 전통문화 분야의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미술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이 분야의 책들은 일반도서보다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화당에서 만든 책들은 많은 분들에게 꼼꼼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듣습니다. 제작담당자의 정성과 노력이 각 제작공정마다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획 편집 못지않은 제작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있는 일, 출판제작의 전문가가 될 분을 찾습니다.

분야 및 인원 : 출판제작 0명
자격 :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인 남자, 단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미감 : 1995년 4월 15일 (본인이 직접 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접수도 가능)

열화당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5-3141~3, 팩시밀리 515-3144